

찬양해요 찬송가 51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9:18-23

-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 말씀 이해하기

바울은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밝은 대낮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잘 갖춰진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은 종교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고, 율법 없는 자는 무엇에든지 구속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며, 약한 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여러 모양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받아들여 구원의 신앙을 가진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적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 좀 더 생각해보기

- 1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18절)?
- 2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무엇이 되었습니까 (19절)?  
모든 사람에게  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 3 20-22절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보고 그 사람들을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4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전도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연약한 신자에게는 연약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전도하기에 좋은 방법을 한 가지만 나누어 봅시다.
- 5 4월에는 이웃사랑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이웃 중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나 신앙 자체에 무관심한 이방인 같은 사람, 또는 신앙이 연약한 자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들의 이름을 적어 태신자로 품고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 기도해요

하나님, 제 주변에는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제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